



“당뇨 잡는 채소 ‘여주’를 아시나요”

아열대 채소 여주 연구회 해남 김성국 씨 부부

해남군 북하면 평암리에서 지난 2009년부터 아열대 채소 여주를 재배 중인 여주연구회 김성국(48·사진 왼쪽)회장은 찌는 듯한 무더위에 땅밭을 쓸으면서도 연일 싱글벙글이다. 자신이 키우는 아열대 채소가 따사로운 날씨에 잘 자라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햇볕이 좋고 기온이 높은 지금이 여주 수확에 가장 좋은 시기”라며 “20~40cm 자랐을 때가 맛도 영양도 최고 좋다”라고 말했다.

여주는 박목 박과의 한해살이 풀로 인도 등 아시아 열대 지역에서 많이 생산된다. 오이 모양긴 초록색 타원형 열매에 융기가 돋아 있으며鄧을 만들어 나무줄기 등을 감아 올라간다. 비타민C·칼륨·인 등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전남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

씨가 따뜻할 때는 꽂이 지고 나서 10~15일 정도 지나면 수확이 가능하다.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봄·가을에는 수확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여주, 인디언 시금치, 오크라, 차요테 같은 작물이 생산되고 있다. 남쪽 땅끝에 위치한 해남은 한반도에서 기온이 높은 지역이라 아열대 작물이 자라기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

우리나라에도 토종 여주가 있었지만 생산량이 적어 경제성이 낮았다. 이에 해남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여주, 오크라, 파파야 등 아열대 채소를 농가에 보급했다.

지난 1999년 김 회장은 지금의 부인 마리로우(여·38)씨를 만났다. 필리핀 출신 부인은 모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여주의 효능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 따르면 필리핀에서는 당뇨를 앓고 있는 이들에게 예전부터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이주 여성들이 고향에서 먹던 여주를 많이 찾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김 회장은 “올해 들어 여주가 ‘먹는 인슐린’으로 불릴 만큼 당뇨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문의하는 전화가 운다”면서 “기준에 재배 하던 오이, 토마토, 상추에 비해 훨씬 수익성이 좋았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4958㎡(1500평) 면적에서 여주를 재배해 연간 약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인디언 시금치, 오크라 등 아열대 채소도 함께 키우는 중이다. 아열대 채소가 봄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는 사실 까지 알려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재배 초기 생장에 적합한 온도와 조건을 맞추지 못해 고생도 많았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당뇨로 고생하던 이들이 여주를 먹고 혈당 농도를 낮춰 혈액을 받을 때면 보람을 느낀다.

해남에서 여주를 재배하는 10가구는 지난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불리면 등 강한 태풍이 연이어 우리나라를 덮쳐 노지에서 기르던 여주가 모두 떨어지는 아픔도 겪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큰 재난을 겪지 않을까 노심초사 중이다. 김 회장은 “태풍이 왔을 때 큰 피해를 입었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여주는 살릴 수 있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수익도 올리고 태풍 같은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1억원 장애인 위해 써달라”

68세 익명의 할머니 공동모금회 기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는 16일 68세 익명의 할머니가 장애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 기부를 약정했다고 밝혔다. 기부자는 16일 공동모금회에 300만원을 건네고 1억원의 기부를 약정해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아니소사이어티 광주 8호(전경317호)회원이 됐다. 익명를 요구한 기부자는 “의식 있는 이들이 신뢰하고 활동하는 단체라면 성금을 공정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장애인을 도우며 여성들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라고 밝혔다.

지난 1946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기부자는 사법대학을 졸업하고 20년간 고직생활을 하다가 그문 후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효경 사무처장은 “나눔을 위해 사랑을 실천해 준 뜻을 받아 힘들고 외로운 환경에 있는 이들의 고통을 덜 수 있게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나눔실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이어져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아니소사이어티 회원은 김영관 그린장례식장 회장, 박영우 주식회사 대유 회장, 박석 세무사, 박순웅 영산중·고등학교 이사장 등 8명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꽃이 반기는 마을로 초대합니다”

10년간 사비로 마을 꽃길 가꾼 장성군 남면 기복호씨

“제가 사비를 들여 마을 꽃길을 가꾸는 것은 우리 마을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성군 남면 승가마을에서 10여 년 동안 마을 꽃길을 가꾼 마을 지킴이 기복호(80·시진)씨가 시골마을에 팽배한 이기주의에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무분별한 ‘소득 불’에 맞서 ‘정이 있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주창하고 나선 것이다.

기 씨는 15년 전 일선 학교에서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고 난 직후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꽃길을 가꾸기 시작했다. 마을로 통하는 폭 2m, 길이 300여m의 수로가 흙길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사비를 들여 무궁화·매실·벚꽃 등의 나무와 맨드라미와 금송화 등을 심어 이름다운 불거리를 조성한 것이다. 이 밖에도 도회지 사람들의

수로를 쓰레기장으로 알고 각종 폐기물을 데우고 빙성을 버리는 등 흙길로 전락하자 불법 폐기 금지라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감시하는 등 깨끗한 마을길 가꾸기에 정성을 쏟았다. 덕분에 지금은 계절별로 화사한 꽃길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토지주택공사가 이 수로에 폭 50cm의 시멘트 도랑을 만들면서 나머지 150cm 까지 파헤치는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 약 100m에 달하는 꽃길 한 가운데 콩을 심어 하루아침에 꽃길이 흔적도 없어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기 씨가 수년 동안 가꾸어온 나무까지 뿌리째 뽑아내 이를 담던 꽃길이 또다시 불붙은 길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는 마을주민과 이웃을 찾는 손님 모두를 위해 조성한 꽃길이 파헤쳐진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다시 꽃길을 복원할 방법을 고심 중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행복문화사업단

내일 화순전남대병원 음악회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음악회가 열린다. 사회적 기업 행복문화사업단(공동대표 정선택·이춘석)은 18일 오후 4시30분 화순전남대병원 대강당에서 가수 이애자·이영 씨와 댄스팀 이카루스가 참여하는 공연을 펼친다.

이번 음악회에서 활동된 영상은 이애자씨와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행복문화사업단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모아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들 방침이다.

행복문화사업단 정선택 공동대표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같은 상황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해 노래·뮤직비디오·영화로 만들어 나가는 융복합 문화 콘텐츠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1년간 118만명과 ‘음식 나눔’

서구청·민속촌, 121회째 행사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황의남 민속촌 대표는 “지역민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임직원들이 1년간 함께 노력해서 이런 성과”라며 “직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나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시진=나명주기자 mjna@

전남농협 목포가족 愛 봉사단 요양원 위문



전남농협 목포가족 愛 봉사단(목포신안시군지부, 목포중앙, 2호 광장, 동명동, 신목포, 자유시장지점)이 15일 신안군 앞해면 노인 전문요양원을 방문해 3번째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남농협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정만주·강명희씨 장남 혁철(농협 전남경영지원팀)군 이철건(전 농협 무안군지부장)·정은주씨 장녀 하경(초등학교 교사)양=20일(토) 오전 11시 ST아워컨벤션 4층 크리스탈홀.

종친회

▲진주강씨 광주전남 종회(회장 강원구) 자문회의=19일(금) 오후 5시 종회 사무실 3층 062-228-3368. ▲(사)전주이씨 대동종족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월례회의=22일(월) 오전 11시 011-605-2059(회장 이보희).

올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영자신문타임즈 아카데미 영자 신문활용 Speed Reading·Listening&Speaking 융합 학습법 교육 =20일(토) 오후 2~5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4층 010-7777-3235.

▲금남 최부선생 기념사업회(추진 위원장 최남희) 친립총회=20일(토) 오전 11시 나주신협대강당 010-3604-1177.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 가정 상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 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 =“입양은 가슴으로 넣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 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

주지부 062-227-8877.

▲중고컴퓨터 기증하심 분=광주·전남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중고 PC를 기증하길 개인, 단체, 기관 환경. (사)장애인먼저 실천 광주·전남운동본부 062-511-0030.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 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기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 =장애인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인 우편의문제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모집

▲(사)광주시 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구연 전문봉사단’ 육성 교육 수강생=23일(화)까지 선착순 20명. 전문봉사단에서 봉사활동 가능한 사람. 9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

~11시30분까지 12주 강의. 062-228-1365.

▲‘함께 애인아요! 함께 기워요! 가정 위탁부모’=부모의 사랑,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늘 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장애인 체육 동호회=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www.gisad.or.kr), 전화 상담 후 신청 062-384-5544.

▲놀이패 ‘신명’ 단원=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화순 효시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목욕 신청자=중증이나 치매 등 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광주 아버지합창단원=광주 거주 합창 좋아하시는 남성,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011-602-7354.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 풍물놀이 및 장구기초, 민요, 한춤 회원=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1시, 화·금 오후 7시~8시 30분.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염주체육관 11호 장구교실 062-371-4242.

▲사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종교에, 독서모임·성경학회 회원=종교에, 돋보기 062-385-0422.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자=월 3~4회 노인 돌봄보리·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부음

▲최영현씨 별세 홍송·명수·미숙·미지·미경·정윤·선미씨 부친상=발인 18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이용호씨 별세 수희·각희·율희·진희·자형씨 부친상=발인 18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신홍석씨 별세 정육(광주일보 마케팅 부국장)·용재(전남일보 마케팅 국장)·옹욱(영암 건강강국 약사)·승

육